

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

〈 목 차 〉

I. 최근 세계경제 동향

1. 세계 경제 종합
2. 미국 경제
3. 일본 경제
4. 유로·중국·동남아·중동 경제

II. 최근 국내경제 동향

III. 대응 정책 방향

1. 선진국 수출마케팅의 심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노력 강화
2. 상시 구조조정 체제의 정착
3. 거시경제정책의 신축적 운용
4. 중산·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

IV. 경제동향 특별점검반의 설치·운영

■ 자료제공 / 재정경제부

I. 最近 世界經濟 動向

世界 經濟 綜合

◇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시의 전망보다 대외경제 환경이 어려워 지고 불확실성도 증대

-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·일본 등의 성장둔화로 당초 전망 4%대 보다 낮은 3%대로 전망
-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도 당초 전망 7~8% 보다 낮은 6% 수준 전망

- 국제유가는 세계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로 유가하락 요인이 있으나 OPEC의 감산대응으로 당초 전망 25불/b(두바이유 기준)에 서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

〈2000년 및 2001년 세계경제 여건 전망〉

	2000년	2001년	
		당초 전망	현재 전망
세계경제 성장률	5%내외	4%대	3%대
세계교역량 증가율	10%내외	7~8%	6%대
국제유가(두바이산 기준)	26.2불/b	25불/b 내외	24불/b내외

美國 經濟

〈最近 動向〉

- 작년 3/4분기이후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

특 세계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집

(전기대비 연율, %)

	98	99	'00	1/4	2/4	3/4	4/4
○ 실질GDP	4.4	4.2	5.0	4.8	5.6	2.2	1.1
- 민간소비	4.7	5.3	5.3	7.6	3.1	4.5	2.8
- 고정투자	11.8	9.2	9.2	16.4	11.2	3.1	△1.3

○ 금년 들어서도 경기회복의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가 혼재

		10월	11월	12월	'00. 1월	2월
부정적 지표	소비자신뢰지수	135.8	132.6	128.6	114.4	106.8
	산업생산 증가율(%)	△0.2	△0.3	△0.5	△0.6	△0.6
긍정적 지표	민간소비	0.2	0.3	0.4	0.7	-
	NAPM제조업지수	48.3	47.9	44.3	41.2	41.9

□ 주식시장은 Yahoo, 인텔, 시스코 등의 잇단 실적악화와 일본 금융불안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급격히 하락

* Dow지수 : 11,497(99말) → 10,785(00말) → 10,495(01.2말) → 9,487(3.21)

* Nasdaq지수 : 4,069(99말) → 2,471(00말) → 2,152(01.2말) → 1,830(3.21)

□ 금년 하반기 미국경제 회복 여부는 증시와 소비자 신뢰 회복 및 IT 산업 향방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

○ IT 산업의 투자위축과 수익성 저하가 단기적 조정 현상인가,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인가가 향후 경기추이의 관건

○ 경기회복 시점에 대하여 재고조정 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견해와 기업·가계의 부채 누적으로 상당기간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병존

〈美國 政府의 對應〉

□ 부시행정부와 FRB는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

○ 감세안(10년간 1.6조 달러)중 소득세율 인하 법안이 3.8일 하원을 통과

- 현행 15%인 소득세율을 12%로 인하하고 세율구조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

* (현행) : 15, 28, 31, 36, 39.6% → (개정안) 10, 15, 25, 33%

- 동 법안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는 약 1조불로 부시행정부 감세방안(총 1.6조불)의 60%에 해당

- FRB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1%p인하한데 이어 3. 20일 개최된 FOMC회의에서 금리를 0.5%p 추가인하(5.5% → 5.0%)

日本 經濟

〈最近 動向〉

- 작년 연간으로는 1.7% 성장하였으나, 2/4분기이후 둔화세

(단위 : 계절조정치, 전기대비 증가율, %)

	98	99	'00	'00 1/4	2/4	3/4	4/4
○ 국내총생산(GDP)	△1.1	0.8	1.7	2.4	0.2	△0.6	0.8
· 민간소비지출	0.1	1.2	0.5	2.0	0.1	0.0	△0.6
· 민간기업설비투자	△2.3	△4.2	4.5	1.9	△2.5	1.5	6.8
· 정부지출	0.4	4.3	0.7	1.4	2.5	△3.3	0.9

- 금년 들어서는 수출둔화에 따라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반전하고 디플레이 현상도 지속

- * 수출증가율(전년동월비, %) : (00.10)8.3 → (11월)10.1 → (12월)8.3 → (01.1)3.1 → (2월)1.5
- * 산업생산증가율(전월대비, %) : (00.10)1.5 → (11월)△0.8 → (12월)1.8 → (01.1)△3.9
- * 동경지역CPI(전년동월비, %) : (00.11월)△0.6 → (12월)△0.3 → (01.1)△0.5 → (2월)△0.4

- 주가지수도 3월 들어 15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, 엔화는 일본경기악화 우려로 약세 지속

- * Nikkei지수 : ('99말)18,934 → ('00말)13,786 → ('01.3.21)13,104
- * 엔/달러 : ('99말)102.10 → ('00말)114.36 → ('01.3.22)123.90

-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·금융부문의 부실이 정리되기 전에는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- 높은 정부부채(GDP의 130%대)와 낮은 콜금리수준(0.15%) 등으로 추가적인 거시정책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

〈日本 政府의 對應〉

- 일본의 연립여당은 3. 9일 긴급경제대책을 발표
-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, 부동산 취득·등록세 3년간 한시적 경감 등을 추진

- 민간기금을 신설하여 은행 및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
- 한편,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(2. 28일)에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물가하락을 막기 위해 콜금리 (0.25% → 0.15%)와 재할인율(0.35% → 0.25%)을 각각 0.1%p씩 인하
- 또한 3. 1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하고
- 물가목표치를 0% 이상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

유로·中國·東南亞·中東 經濟

〈유로 地域〉

- 작년 유로경제는 3.4%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
- 독일경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, 프랑스·네덜란드 등 여타 국가는 호조 세 유지

〈 주요 국가의 2000년 분기별 GDP성장을 추이 〉

(전기대비 증가율, %)

	00.1/4	2/4	3/4	4/4	연간
독일	0.9	1.2	0.3	0.2	3.1
프랑스	0.6	0.7	0.6	0.9	3.2
이탈리아	1.1	0.2	0.6	0.8	2.8
유로전체	0.9	0.9	0.6	0.7	3.4

- 금년 유로경제는 지난해 보다 다소 둔화된 2.5%~3%의 견실한 성장이 전망되나 최근 당초보다 다소 둔화된 전망도 대두
- 최근 독일, 이태리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고,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유로화의 강세도 단기간에 그침

* 유로화 추이(\$/EUR) : ('99말)1.0045 → ('00말)0.9425 → ('01.1.8)0.9584 → ('01.1.말)0.9267
→ ('01.2.말)0.9184 → (3.22)0.8949

- 최근 광우병·구제역 파동 등으로 축산·유제품 분야에서 큰 손실 예상

〈中國·東南亞·中東 地域〉

- 미국경제의 둔화, IT수요 감소, 국내 구조조정의 부진 등으로 태국,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경제는 둔화 추세
-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일부국가에서 정치불안이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어 경제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
- WTO 가입을 앞둔 중국과 홍콩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 지속

(전기대비 증가율, %)

	00.1/4	2/4	3/4	4/4	00연간
중 국	8.1	8.3	8.2	7.6	8.0
홍 콩	14.1	10.8	10.8	6.8	10.6
대 만	7.9	5.4	6.6	4.1	6.0
인도네시아	4.2	5.2	4.4	5.2	4.8
태 국	5.1	6.3	2.6	-	4~4.5

〈中 東〉

- 86년 유가폭락 이후 1,000억불 수준에 그치던 OPEC 회원국의 원유수익은 2000년 2,500억불로 예상 되어 사상 최고치인 80년 수준에 육박

* 원유수익 추이 : ('73) 400억불 → ('74) 1,300억불(1차 석유파동) → ('80) 2,800억불 (2차 석유파동)
→ ('99) 990억불 → ('00) 2,500억불

- 원유수익의 급증에도 불구하고, 주요 산유국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주력 할 전망
- 주요 산유국들은 부채해소, 민영화 및 무역·투자자유화등 원유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담수화 설비, SOC 사업확충 등 원유고갈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·추진중

〈주요 산유국들의 원유수익 사용계획 (2000. 12월 WSJ)〉

국 가	석유수익 증가율	사 용 계 획
사우디	73% (383 → 673억불)	외채해소(1,500억불), 저장고 확충
이 란	67% (139 → 232억불)	외채해소, 민영화
쿠웨이트	77% (100 → 176억불)	재정적자 해소, 도로·수송관 건설
UAE	73% (119 → 207억불)	경제다각화

- 중동지역 경기호전에 따른 해외건설업체의 중동지역 SOC 참여 활성화, 플랜트 수출 및 상품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

II. 最近 國內經濟 動向

- 우리 경제는 작년 4/4분기 이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둔화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
 - 1월중 산업생산·판매·출하 증가율은 전월대비 각각 1.0%, 1.3%, Δ0.2%를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
 - 작년 12월 0.1%로 둔화되었던 수출증가율이 1월과 2월에 각각 5.1% 및 6.6%로 회복
 - 1월중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Δ9.2%로 확대되고 내구소비재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(Δ22.2%)
- 한편 최근 1, 2월중 실시된 각종 소비자 신뢰지수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는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호전되는 모습
 - 전경련BSI : ('00.11월)81.0 → (12)68.0 → ('01.1월)62.7 → (2)83.0 → (3)102.4
 - 한국은행BSI : ('00.3/4)110 → (4/4)107 → ('01.1/4)67 → (2/4)92
 - 통계청CSI : ('00.10)89.8 → (11)82.4 → (12)82.2 → ('01.1)89.7 → (2)92.0
-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도 점증하는 상황
 - 우리경제의 대외개방 확대, 정보화의 가속화 등으로 미국 등 해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그 파급시차가 짧아지는 동조화 현상이 심화
 - 이에 따라 해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가 최근의 소비·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

III. 對應 政策 方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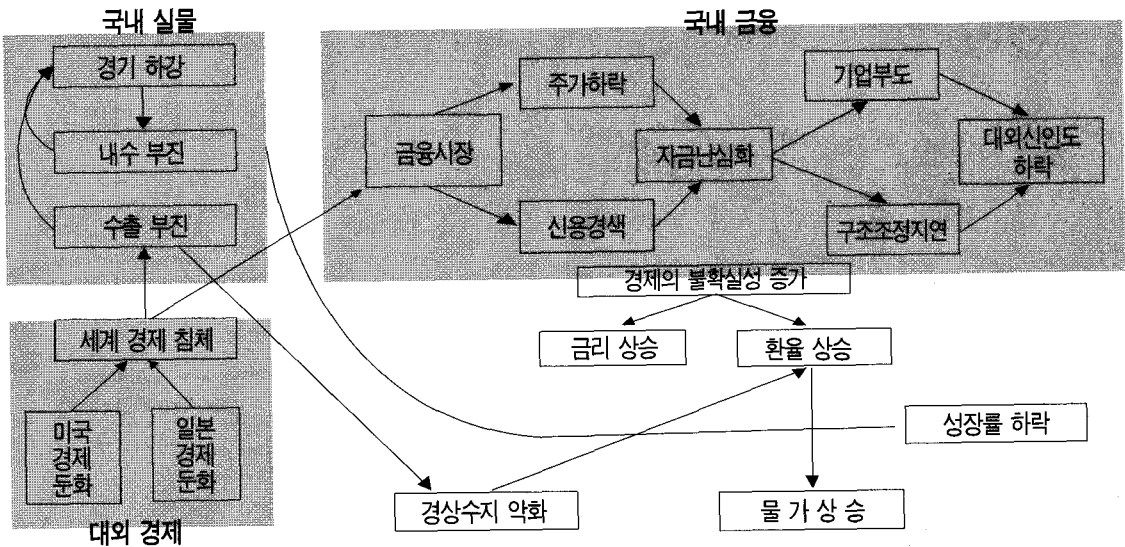
< 基本方向 >

- 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·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및 체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
 -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수출마케팅 심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배가
 -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수출산업의 경쟁력과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
- ◇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둔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
 -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신속적으로 운용

○ 중산·서민층의 생활안정 추진

◇ 미국·일본 등의 경기하강정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비대응방안 (Contingency Plan)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

〈세계경제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〉



先進國 輸出마케팅의 深化 및 輸出市場 多邊化努力 強化

□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 배가

- 미국·일본등 주요시장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, 조선 등의 경쟁력 강화
 - 특히 부품·소재산업의 Global Sourcing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·전자 등 부품시장 개척활동을 강화
 - IT부문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활용하여 R&D를 지원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 노력을 지속
-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 무역전시의 육성기반구축,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이버무역 기반 확충 등을 추진

- 교역국별 무역마찰 현안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무역환경 개선에도 주력
- 수출선 다변화와 적극적 Marketing노력 강화
- 수출시장 다변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차별성 제고
 - 우리의 수출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% 미만인 국가중 수출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한 적극적 시장 개척 노력 경주
 - * 우리 수출점유율 : 오스트리아(0.35%), 벨기에(0.51%), 프랑스(0.54%), 캐나다(0.65%), 멕시코(0.70%) 등
- 작년 고유가로 인하여 증가한 중동 산유국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수주토록 적극 노력
- 금년중 예상되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도 적극 활용
- 중남미·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하여 전략품목 중심으로 마케팅 강화

常時構造調整體制의 定着

- 지난 2월말까지 마련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기본틀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및 점검 실시
- 「原則과 正道」에 입각한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 신뢰 제고

巨視經濟政策의 伸縮的 運用

- 당초 마련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
 - 예산의 조기집행, SOC사업, 중소기업 지원, 실업대책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
-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통화·금융정책의 추진
 -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,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 조절대책과 함께 smoothing operation을 병행
- 물가안정 노력 강화

-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 유도하고 상반기중에는 인상을 자제
- 전자상거래, IT산업의 육성을 통한 거래비용 및 재고비용 절감 등으로 물가안정기반 조성

中産·庶民層의 生活安定 支援 擴大

- 사회안전망의 형평성·효율성 제고
- 근로능력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마련 및 후견기관 확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
- 적극적 실업대책의 추진
- 실업자 직업훈련을 효율화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인력이 부족한 IT부문의 취업지원

V. 經濟動向 特別 點檢班의 設置·運營

- [경제동향특별점검반]을 설치하여 세계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전략 수립
- 구 성 : 재경부 차관보(반장)외 민·관전문가 11인
- 정부 : 재경부 경제정책국장,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, 산자부 무역투자심의관, 건교부 건설경제국장,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,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, 한은 조사국장
- 민간 : KDI 거시경제팀장,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, 국제금융센터 동향팀장, KOTRA 무역진흥본부장
- 운 영
- 매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회의 개최
- 대외여건변화에 따른 정부대책의 수위 및 시기를 판단하여, 경제장관간담회(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)에 보고